朝鮮日報 夕刊
二十三日(日)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
發行所 京城府堅志洞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資本主義의 是正運動
果然이運動은成功할가

一

現下 各國政府及 爲政者들은 現在의 經濟及 政治制度를 是正해보라고 努力하기에 熱中하얏다。米國大統領 루즈벨트氏가 就任한 以來 巨大한 財政을 던저가지고 所謂 N·R·A의 이름으로 適用되는 産業及 農業의 積極方面과 失業救濟의 消極方面에 全力을 다하야 新經濟組織을 樹立하랴하는것은 世人의 周知하는바어니와 獨逸나치스政府의 政治的及 經濟的 革新運動, 팟쇼十週年을 맛는 伊太利政府의 組合國家運動, 其他各國의 計畫經濟運動은 모다 從來의 自由主義的 放任主義的政策으로 因하야 生한 弊害를是正해 보자는데에 그 根本政策이 잇다。그러면 이 世界各國이 떠들고 計畫하는 計劃經濟 乃至 政治的統制가 有効한 成果를 볼가, 이것은 現下 評論家、識者들의 注目의 焦點이 되엇다。

二

맥도날드의 社會民主主義政策이 이미 試驗濟로 이 時代에 實現되지 못하게되엿것은 輕率한 論斷이 아니라도 누구나 推測할수잇는 일이오、建設의 極히 初期에 잇는 나치스政策의 衆績을 이제곳 評斷하기 어려울것도 누구나 首肯할바일것이다。그러고보면 可히 評論의 對象이되고、試驗管中의 材料가 될것은 伊國의 팟씨즘과 米國의 뉴띨政策이니、이本欄에서 評論의 對象으로 삼는 所以이다。

첫재、伊太利에 關해서는 日本과 因緣이 적은곳이라 그 文獻과 統計가 적으나 大體로 經濟方面에 잇서서 一九二二年 革命當時보다 一步前進함이 잇다는것은 御用學者의 發表만이아니라 冷靜한 眼目으로 이곳을 旅行하는 사람들까지 首肯하는 바다。道路는 整理되고 乞人은 退治 되엇스며 旅館은 淸淨、親切해지고 汚濁한 酒巷은 淨化 되엇다고。그러나 國家의 豫算을 보면 軍事費가 그 最大項目을 차지햇고、産業的 文化的 項目은 極히 적다。그러므로 팟씨스트政府가 治安을 維持하고 失業者를 어느 程度까지 退治함에는 成功햇다 할지라도 그 軍事費를 産業及 文化方面에 썻스므로서 이러날번했든 經濟的 結果는 只今에 차저볼수가 업다。말하자면 政治的 極度의 壓迫으로써 經濟의 어느程度의 發展을 보앗다 할것이다。

三

다음 米國의 리리運動을 보자。財政으로 數十億을 던지고 人員으로 數十萬을 動員시키고서 어든 効果는 무엇인가。失業者가 多少 減少되고、勞賃이 多少增額햇스며、生産界는 活氣를 띄고 貿易額이 增進된것은 事實이다。그러나 物價의 騰貴率은 勞賃의 騰貴率을 超過하야 도리혀 勞働者에 威脅이되엇스며、失業者는 그全體의十퍼센트를 減少시키지 못햇다。N·R·A의 成果가 그期待에 맛지안엇다하는것은 一般評論家의 一致한 結論이다。

四

그러면 엇재 所謂 統制經濟、計畫經濟가 成果를 나타내지못하는가하면 그것은 生産機構가 個人의 手中에 掌握되어잇는때문이다。政府가 아무리 第三者의 立場에 잇다할지라도 伊太利에서는 國家의 基礎로 되어 잇는 組合에 팟씨즘을 强制치 안는이는 資本家나 勞働者나 加入되지 못하얏는데 팟씨즘은 資本家의 利益이란 이름으로 資本을 擁護하고 勞働을抑壓할 處地에 잇다。何故오하면 國內經濟를 潤滑히 하라면 國際貿易을 增進하라 해야하며 低廉한 生産費를 要하나니 低廉한 生産費는 勞賃의 低下로써만 可能한것이므로써다。米國의 政策으로 보드래도 루大統領은 民主黨의 立場으로 立脚되야 民主黨支持者의 投票로써 選擧된이니、民主黨에 資金을 提供하는것은 一部大資本家니 萬一 루즈벨트大統領이 이들資本家의 利害에 거슬리는 政策을 쓴다할것가트면 그의 地位는 不日하야 解消될터이니 루大統領의 政策은 資本家의 利益을 無視치 못한다。그러나 資本家의 利益과 相反한 勞働者의 福利를 充分히 發揮할수가업다。

英國、歐米派를援助 對日牽制를策動
中部中國의權益確保를目標
外務當局은嚴重監視

【聯通東京電話】昨年四月天羽聲明以來中國에 在한日本의地位는 漸次確保되고 今年初頭以來의日中好轉及今回의 北中問題에依하야漸次日本의 對中進出이顯著함에狼狽한 英國은 共同借款의提議及經濟專門家의 派遣等對日牽制에努力하고잇든데最近에니르러서는北中에 在한日本 勢力의驅逐이困難한것을 覺悟한 結果中部中國에在한 權益을 死守키로方針을 決定하고 이目的으로歐米派를 援助하야 對日牽制를試하려는 形勢를 示하고잇슴으로外務當局도 그推移를 警戒하고 잇다 그리고 國民政府는 目下廣川外交에 信賴하야日中問題에 關하여서는 歐米의關與를 不許한다는 立場을取하고 잇슴으로 英國의策動이어느程度까지 奏効할는지는 疑問인데右策動은 日中懸案의 解決에도直接으로 影響을及할것으로 外務當局은 深甚한注目을 拂하야그推移를 監視하고잇다

舊北鐵從業員 全部撤回完了

【哈爾賓廿二日發聯合】北鐵接收以後 三個月을經過한 今月廿二日로써 殘留하여잇든 北鐵從業員은 全部解職되여 舊北鐵全線으로부터 蘇聯國籍從業員은 完全히 退却하야 舊北鐵은 實質的으로 滿洲國의것이되엿다 舊北鐵從業員의 本國送還은 이미 東西兩部線과 南部線의一部及哈爾賓組의輸送도 近近開始됨으로 七月中에는 撤回를完了할豫定이다 그리고 同時에 北鐵從業員의北滿派遣員三千名도 廿二日로써 出張期間이滿了됨으로 大部分은 哈爾賓鐵路總局員으로任命되게되엿다

英獨協定變更을 佛國側에서要求
兩國의主張完全離反

【巴里二十二日發聯合】特使이든氏와 라발首相과의 會談은前日에繼續하야 二十二日午後零時十五分부터 外務省에서 開會되엿다 前日의會談에서는 라발首相은 今次의英獨海軍協定交涉에當하야 英國의態度에對하야 여러가지 質疑를提示하야 佛國의態度를明白히하얏슴으로 이든氏는 電話로써 라발外相과의 會談內容을 本國政府에 報告하고아울러 訓令을 請하얏든바 이에對한政府의 回訓은 이미 到着한것갓다 二十二日 會談에서는右回訓을 基礎로 討議가 進行될것으로보인다 今次의 英獨海軍協定에對한 佛國의態度는 極히 强硬한바 그主張하는바는

一、二月三日의 倫敦宣言에徵하야 陸空海軍의協定은 個別的으로 分離하야 締結되여서는 안된다

一、따라서英獨海軍協定에서보는바와갓흔 英國政府의態度는當然히右宣言에背反함으로그變更을要求한다

一、今後에行할空軍로카르노協定交涉에關하야도 同樣으로써英國은現實에即한方法으로 모든問題를 解決하여갈것이라생각으로歐洲平和確立에 關한兩者의主張은 完全히離反되더로問題는英國이어느程度까지 佛國의主張을 容認하는外에달녀잇서그推移는자못注目된다

英佛會談 第二段階에進捗

【巴里二十二日發聯合】二日間에亘한 라발、이든兩氏의 會議結果英國政府의 眞意도 明瞭하게되엿고 英獨海軍協定에 對한佛國政府의 疑念도 一掃된模樣임으로 이든氏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第二段의 折衝으로 올마倫敦宣言의 主旨에따라 陸海空軍縮相互協定의 實際的解決에 進行하게되엿다

英獨協定의締結은 再軍備制限의目的
單히英海軍政策의延長에不過라고
英政府佛反駁에回答

【巴里二十二日發聯合】英獨協定에對한 十七日附 佛國政府의反駁的通牒에 對하야 英國政府는 二十二日 正式回答을 手交하엿다 右回答의內容은 左와如하다

一、英國政府는 今日이라도 二月三日 倫敦英佛共同宣言에言及한諸點에對하야 全幅的支持를與하며 宣言의精神에關하여는 依然誠意와遵守를誓約하는바이다

一、但 今回의獨逸海軍再軍備는 英獨兩國間의 協定의形式으로써 締結한것이안이라 一方的決意가表明되데不過하며 이에 따라 英國政府가 佛國의立場을 無視한것은안이다

一、그리고도今回의宣言은 獨逸의 再軍備그것을 目的한것이 안이라 再軍備의制限을 目的한것이다

一、今回의英獨協定은 佛國의參加를거다리지안코 獨立에成立하엿스나 이것은從來英國海軍政策의 延長에不過하다 英國은決코 特히今回佛國을 除外한것은 안임뿐더러 이海軍問題는 二月三日 倫敦宣言結果에서 이러난것이안이라 그보다 以前에 遡上하야 華府條約에서 發端된것이다

一、英國政府는 軍備의 縮減은 他의諸問題에 關한交涉成否에 依하야 妨害되여 遲延될것이 안이라고생각한다

一、勿論英國政府는 東歐로카르노等 集團的安全保障機構의 强化에關하야 佛伊兩國政府와의 協力을決코拒絶한것은 안이다

一、英國政府는 海軍問題에關하야 遲延을避하기爲하야 英獨兩國間의直接交涉이 有望하다고생각한다

一、이러한意味로 英國政府는 佛國에派遣이 速히 專門委員을倫敦에派하야 英佛海軍會議의 促進에 協力하기를要望한다

一、蘇聯邦海軍의增大가 獨逸海軍을 膨大케할憂慮는업다 蘇聯邦의 海軍兵力이 異常하게增大된다하더라도 그海軍力의增加를對英一割五分으로 嚴格히 制限되여잇다

對蘇不侵條約締結로 軍備縮少는不能
國防의强化는不可避의形勢
陸軍省의兵財兩全觀

【東京電話聯合】第二回內閣審議會에잇서서 高橋藏相의 發言에依하야日蘇不可侵條約締結問題國防財政의 均衡問題가 當面問題되여今後進展이 注視되여잇는데 陸軍當局에서는 不可侵條約締結問題其他當面의 主要問題에關하야左와 如한見解를 갓고잇다그리고 陸軍側은來二十八日內審總會에서도 委員의 要望이잇스면 積極的으로 此等諸點에 對하야 陸軍의 所信을갓고 잇슴으로今後의態度는注目되여잇다

一、日蘇不可侵條約締結問題

世上에 日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하면 直時軍費縮少가 可能하다는드시 생각하는側도잇스나 이것은 큰誤解이다 蘇聯邦은 이미西部에잇서 國境을 隣接한 數個國과 不可侵條約又는 此에類似한 條約을締結하엿스나 同方面의 蘇聯邦軍備는 依然縮減되지안는것으로 보아 不可侵條約에 絶對性을 附與하기는 困難하다 反하야 國防은 恒久性을갓는것임으로 條約締結로서 國防을輕減하기는危險한것이라할것이다 日蘇不可侵條約에關하여는 外務當局이 聲明을明白히한바와가티 此를行하는것보담 먼저 兩國間에 橫在한懸案의解決이 先決條件이라고 말치안을수업다 漁業問題라든가、滿蘇國境問題라든가、國境에集中된蘇聯邦의大兵力이라든가 此等 懸案解決로日蘇間의 暗雲을除去하고 友好的 親善關係를 强化하는것이 보담더一層緊密한것이다

一、財政과軍費의 均衡問題

內閣審議會에잇서서 이問題가熱心으로 論議될것이나 陸軍으로서는 이兩者의均衡을 國防을 中心으로하야 考慮하는點에잇서서 決코 뒤떠러지지안코나 이것을論議함에當하야 公債不增發과 不增稅를前提로 하는것은 實成할수업다 現下世界의 諸情勢가 極히重大하고將來에 더욱緊迫할 形勢에 處하여 잇슬뿐만 아니라 日本을 中心한 非常時도 解消되지안코 軍備는 一層强化를 必須로하는 現狀에잇서서는不可能하다고말치안을수업슴으로 陸軍은 軍備强化를 不可避하다고하는國際情勢에잇서 財政과의均衡을 維持하려하면 從來와如한意味의 健全財政이안이고 더욱積極的인 意味를가지게하야 本問題에對處치안으면 안될것이다

國防豫算審議 內審委員回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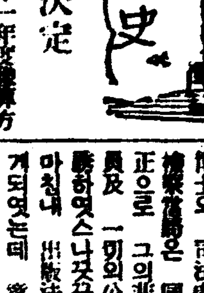
【東京電話聯合】明年度豫算編成에잇서본腦確하라고指目되는國防豫算과 財政調和問題에對하야 內閣審議會가 去十七日第二回總會에 잇서그論議의 對照로 引用한것은 內審이 이軍費問題解決에 着手하는것은理論으로는 成立되나 事實問題로 에進出치나 안을가 期待되든니 國防豫算에 對한 內閣審議會의 見解는 반드시 一致되지안코따라서 이點에 關한 內審의今後動向은 바야흐로 疑問視되여잇는實情이다 即十七日總會에잇서서는 賴母木委員이 國防豫算의見解에 對하야 南軍部大臣의 眞意를要求한데對하야 大角海相은 軍縮會議의 結果에 待할것이라고 答하고 또林陸相은 二十七日의第三回總會에서 列國의 軍備事情及 滿洲國防、治安狀況等을資料로答하기로되여잇다 따라內閣審議會委員이 熱心으로論及하면 國防豫算解決에 一種의曙光이보이게되엿스나 內閣審議會全體로서의態度는 消極的으로 水野委員은 國防豫算은 國際的으로 微妙한關係가잇슴으로 現下國內、國際情勢에鑑하야 日本으로서는어느程度까지 國防費가膨脹될것도 不得已하다 따라內閣審議會로서는 이問題의 解決에 着手하는것은 理論으로는 成立되나 事實問題로는 不可能하다는 見解를 가지고잇다

南洋마샬群島의 獨領復活希望?
二十一日英獨會談에서

【電通四巴二十三日發】佛國某方面의情報에依하면 리벤트롭獨逸代表는 二十一日볼드윈首相及비몬外務次官과의 會談에잇서獨逸의 領土擴張에關하야 아프리카에잇서서 葡萄牙領植民地에 關한英獨協定復活을 要求할意向을漏洩하엿다 그리고 目下日本의委任統治地로되여잇는 마샬群島에關하여도 그獨領復活의希望을暗示하엿다고傳한다

國民政府北中策

【北平二十二日發聯合】北平政務整理委員會는 軍事分會를各代理委員을任命되여 爲先善後整理를 委員長이 斷行하야 政整軍分兩會長의 任命이 考慮되고잇는바 一方反蔣派의 策動乃至獨立派의 擡頭가頻頻히傳되고잇다 이때문에國民政府는 右反蔣派의 獨立運動을防止할手段으로 軍事上政務整理委員會 軍事分會를 統一合體組織하야 新機關으로하고 이에華北의軍、政兩部의 行政權을附與하려하고잇다라고觀測된다



世界週史

豫算方針決定

大藏省의 昭和十一年度豫算方針은 二十二日에이르러 마치내 決定되엇는데 右內容은 二十五日定例閣議에提出케되엿다 現下內外諸情勢에鑑하야 兵農財의三全主義를基調로 公債漸減과 旣定歲費節約을 根幹으로하야 各省의 新規要求의 新事業을 一擲하는것이다 그리고特히考慮한것은 國防費의 平年化와 時局匡救費를 調整한것等이다

美濃部氏起訴

天皇機關說問題에關한 美濃部博士의 司法處分問題에 關하야는 當局은 國體明徵에對한 博士에게對하야 엄正으로 그의非를 認하고 一切의公職을辭하라고 勸告하엿스나 그것을내不肯하기때문에 마침내 出版法違反으로 起訴하게되엿는데 意外의 故障이생기게되엿든바 來月上旬에는美濃部博士에對하야 起訴手續를取하게되리라한다

察哈爾問題停頓

第二張北事件을 中心으로한日本軍部對 宋哲元의關係는 土肥原、秦德純兩氏의 覺書交換으로 一段落을 告하게되리라고 觀測되든니 二十二日 北平에서열린 右兩氏의 會見에잇서서 中國態度가 意外로 强硬하엿기때문에 正式交涉은 無期延期되엿다

에國調査團要請

에디오피아政府는 伊太利와의國際紛爭이 急迫化한데 鑑하야 聯盟規約 第九條를 援用하야 聯盟調査團의 派遣을 要請하기로 決定하고 聯盟事務局長 아브놀氏에게 要請通牒을 發送하엿다

英獨海軍協定

六月三日부터 倫敦에서 開催된 리벤트롭과 英政府首腦部間에 열린 英獨海軍會談은 十八日에이르러 비로소그協定이 成立되엇는데 그內容은 左와如하다
一、獨逸의海軍總比率은 英國의 三割五分으로함
一、潜水艦에도適用함
二、右比率은個個艦種에 關하야도 他의艦種과의均衡을 保持하야 英獨의均衡을 維持함

四川共軍合流

雲南省으로부터 四川省에侵入하엿든 朱毛共軍主力部隊는 各地에잇는 土着軍과 合流하야 今月初 懋功 定寧을 占領한다음 四日에는 四川軍의防禦線을 突破하고 四川省內에 侵入하야 四川北部에 잇는 徐向前軍과 合流키爲하야 部隊를 充實히하고잇다

外蒙橫斷大鐵道 蘇聯政府서計畫
駐蘇中國大使通하야交涉中
軍事經濟上重大意義

【電通新京二十二日發】外蒙赤化에 成功한 蘇聯은 察哈爾、綏遠、寧夏의 內蒙方面을 向하야 그 勢力을 미치기 爲하야 積極的計畫中이든바 第一着手로 外蒙古를 橫斷하야 綏遠省都 歸化城으로 至하는 一千粁에亘하는 鐵道를 敷設하기爲하야 蘇聯外務人民委員部는 目下 駐蘇中國大使 顔惠慶氏를 通하야 交涉中이다 右鐵道의內容은 蘇中共同管理로 敷設에關한一切經費指導는 蘇聯政府가 負擔하기로되고 同鐵道의 起源은 철프네 庫倫間 四五〇粁로 더욱 延長식혀 歸化城에 至하기까지 蒙疆中國을 連絡하는 大鐵道로 軍事的及經濟上意義가 큰것이라하야 자못 注目되여잇다

米日爲替

【經濟二十二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
賣 二十九弗七 一高
買 二十九弗四 保合

日曜氣配

▲株式 依然底堅으로 保合이나 一般的으로 買氣薄、氣配不振
大新 六六、三〇 滿新 三〇、四〇
東新 一三七、三〇 白產 六六、七〇

▲期米 政府米三十五萬石拂下發表는 今月中에 具體化할것으로 생각치 안을것으로 一般의 豫期하여든만큼 深甚한困難할天氣配는二十錢安
拂下申込 六月二十七日
拂下決定 六月二十九日
大阪地方天候 曇

人事、集會

▲緒方榮助氏外十氏 (朝鮮業販善에對하야商工會議所에要求提出)
▲張龍河氏 (培材高普敎務主任) 次入京本社來訪
▲孫來章氏 (京城西小門町中華基督教會牧師) 同上
▲田南業氏(同教會人)同上
▲王春田氏(同上)同上
▲魏少卿氏(同上)同上
▲鄒本德氏(同上)同上
▲鄒滿玉氏(同上)同上
▲鄒適瑛氏(同上)同上
▲蕭全文氏(同上)同上
▲王銘三氏(仁川中華基督教會傳道師)同上

今井田總監營口向發

【大連二十三日發聯合】旅順大連兩市의 視察과滿鐵及關東廳當局과 朝鮮人滿洲移民及保護等에對하야安協을遂한今井田政務總監一行은二十三日午前九時大連發『아시아』號로 營口에向하엿는데總監은營口의 安全農村에서 朝鮮移民狀態를 詳細히 視察할터이다

『이든』氏羅馬向發

【電通巴里二十二日發】라발佛首相과의會談을 終了한英國特使이든氏는 二十二日午後十一時二十分巴里를出發하야 羅馬로向하엿다

八面鋒

比律賓 學生選手一行 昨日처음으로 入京、그들의 感想에 學鬪로써 民族間 親愛를 도모하게되것이 무엇보다 깃브다고。

◇

이것이 因緣으로 比島人과朝鮮人이 文化上으로 經濟上으로連絡하는 機會가되는데 이번의因緣은 至重至大。

◇

獨逸의 對英政策은 默認하고 伊太利、獨逸과 不侵略條約을 締結。

◇

사람은 大敵을 맛나면 小敵과 握手하는 法。此所謂 敵本主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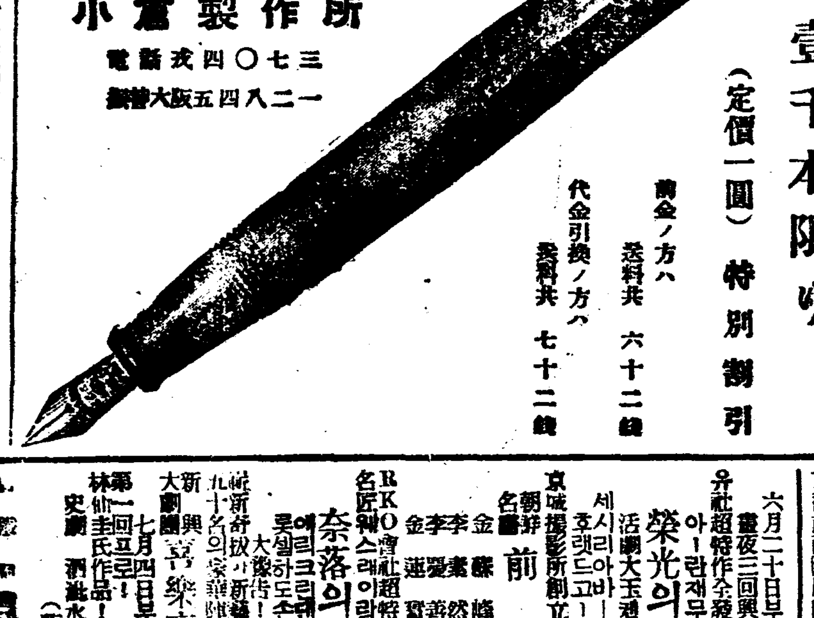
◇

二十四隻 驅逐艦과 米海軍 建艦四億六千萬弗 兩院通過를 通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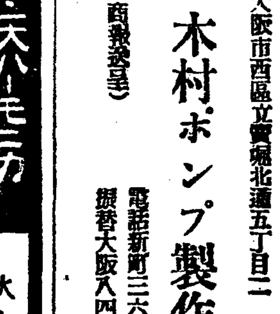
◇

起工이 이뿐이다 計畫은 百一隻、建艦은 十數億弗。

今日本紙四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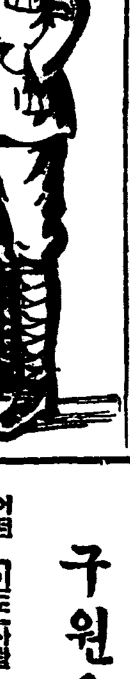

軸入吸動自製トイナボエ
付ンペ金用代ンペ金四十
大阪市南區高津四番丁七三
小倉製作所
電話戎四〇七三
振替大阪五四八二一
大特賣
壹千本限り
(定價一圓) 特別割引
前金ノ方ハ 送料共 六十二錢
代金引換ノ方ハ 送料共 七十二錢
本案內販告一手特別扱 大阪西區本田一番町壹
滿鮮信報社

蝶印有名ニ天ハーモニカ
ピックアップ バンド
川口蝶超特選
全國各樂器店及百貨店ニ販賣
發賣元 大阪南區西區新町通四
吉川樂器店


各種ポンプ 製作卸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五丁目二
木村ポンプ製作所
(目錄送呈)
電話新町三六七番 振替大阪八四參三番

上村淸太郞商店
(同業者·店章捺印에 限하야 定價表送呈)
大阪市東區平野町二丁目十三
電話本局二三四七番 振替大阪四九四九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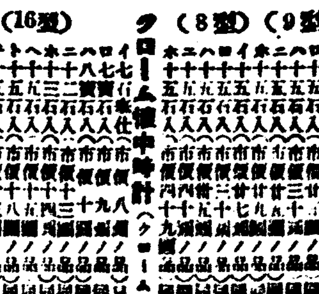
印肉專門製造卸
五十餘年의古歷史가말한印肉
硃朱製·大阪製朱座


營業種目
各學校
學校 靑年 服
靑年團 制服
會社 制服
作業 服
見本御送付可候
木田作商店
大阪市東區松屋町 角南人農町
電話東四六九九

御仕入は早く!!
夏運動服裝品揃
最新流行與店獨特の流
⊙カタログ送呈
⊙良い品仕入は店の信用
⊙商談に依り特約店應ず
Tskigi Sporting Goods & Co.
全般運動服裝製造卸
ツキギ運動用品本舖
大阪市北區老松町壹丁目 支店 東京神田三崎町一丁目

大阪着名問屋案內

(カタログ送呈)
家庭用金物
硝子食器荒物
卸商 中田新商店
大阪市西區北堀江通六


⊙純粹的大賣出
十五ヶ年保證附
クローム側時計
クローム側中ウオルサム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구원을찾는길
어떤 「인도」사람 하나가 산속에 쇠못을 꽂고 벌로 그신을 섬긴후에 그 쇠못을 마치 가는중에 피가 흐르고 괴로움을 당함으로 죄를 눈것이엿다 도중에 괴로움이 심하야 지는날로 어떤 「예수」교선교사가 그나무아래로 와서 쉬게되는데 한「예수」교선교사가 그나무아래서 의 말을 전하고 있었다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하신다」하고 ...

當選謝禮
今般利原郡南面協議員에本人等이當選되옵은有權者諸賢의 厚意하신德이옵기玆히紙上으로御禮를謝하옵나이다
廉道殷 李芝豊
李哲發 辛承鳳
金在薛 李長根
朱炳韓 辛甲濟
朱明俊 崔河南

⊙諸腫初發에七日內 破核散暈의仙藥
⊙旣成腫症에唯一無敵한 生新完合의
車富藥
一號 二號
大興堂藥舖 全州光揚林町 振替京城一四八三一番

朝報案內
讓渡 小規模의洋藥房을 讓渡하실분은 授恩洞一六三
吉祥來에게로至急通知하시요
純水版彩色九度高級弱秘中의秘藏 美男美女四十八態 中版四十八枚一組特價五圓、見本目錄切手卅錢 京都市西陣局區板倉町 自然社

前科者 朝鮮名畫 監督 金蘇峰 主演 李愛羅 金仁善 金連實
六月二十日부터特別大公開! 晝夜三回興行!
榮光의曠野 西部大活劇
奈落의靑空
新興大劇 喜樂座大公演
優美館

大江の乙女 テ기시에아나 全八卷
아버지를차저서 全七卷
후오도의離婚 全六卷
桃花劇場
怪人マブゼ博士
女の心
浪花館

拳鬪人氣滿都充溢
明夜·大決戰遂迫到
傳統의比軍、新興의朝鮮軍
果然覇權은將次어데로?

전조선아마튜어권투련맹주최와 본사후원아래열리는 전비률빈(全比律賓)군대 전조선(全朝鮮)군의 국제대항권투전은 이윽고명이십사일밤 일곱시반으로 박두하엿다 조선권투계의 기록적대전인동시에 금번스포ー츠게의 호화판으로 어느점으로보나 만도인까의 최고봉을 이룰대결전의 이날을하로 압둔량군의 가상은뛰고 피는 끌코잇다 이일전으로써 지금까지의 동양권투게의패권을 쥐이고잇든 비률빈군의 아성을무찔러 그명예를 우리조선군이 차지하느냐? 혹은 원래의 비률빈군이 승승장구의세로 그용기를어데까지나 휘날릴것이냐? 과연각방면의 기대와 흥미는오로지 스포ー츠적흥미이상의 것을겸처만천서하팬의 흥분은 고조에 달하여잇다

兩軍의鬪志滿滿
그러나各自自重
連日繼續든練習도中止하고
選手들컨듸순도絕好

전소선대표군을 격파하야 명실공히전동양의 왕좌를 차지한야 심만만한 비률빈(比律賓)대표군은 작이십이일에 수표정동양권투도장에서 최초의련습을마치고 금이십삼일에는 래일의싸홈의 제강을단숨에 물리치고 약진권투조선의 명예를 전동양적으로 떨치려는투지만만한 조선대표군은 비률빈군의 래경을압두고 이주일전부터 원동조선권투구락부에서 한숙하며 간독강의 자신을보이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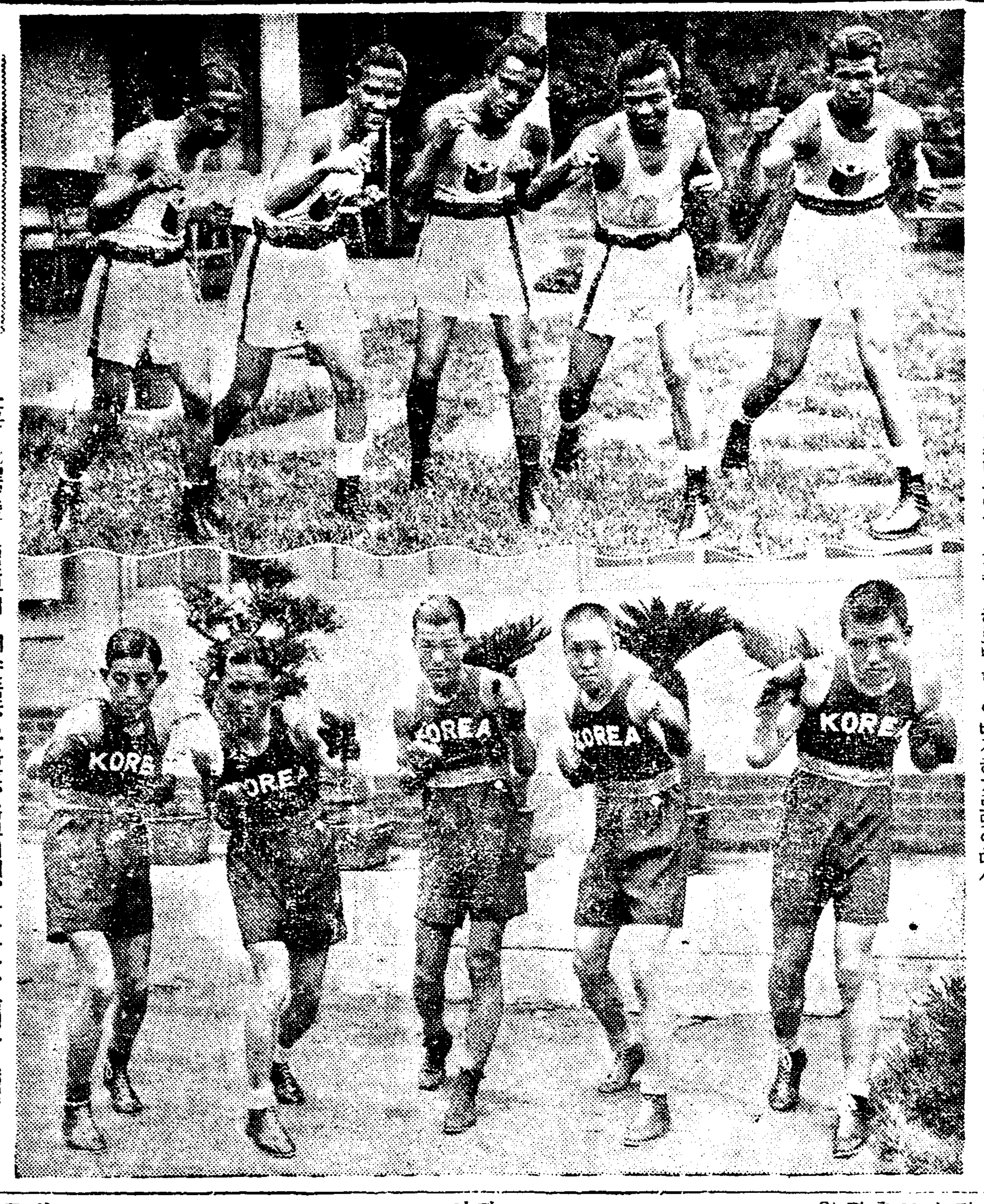
을압두고 유쾌한 유희등으로오날이가기를 기다리고잇다 비률빈군의『컨디순』은 다섯선수가 모다랑호하야、전승의 의기가넘처흐르고잇다 한편으로 비률빈
라원(姜樂遠)씨 지휘아래 련일맹련습을 쌋코잇섯는데 바로명야로 박두한대접전을 압두고다섯대표의 뛰노는가슴을 억제하고 자중하고잇스며연히 전승

◇大會委員

▲會長 尹致昊 ▲副會長 兪億兼 ▲顧問 米國總領事『랭돈』 方應謨 呂運亨 李相協 宋鎭禹 ▲總務委員 金圭冕 金炯元 金永述 尹錫惠 ▲朝鮮代表軍監督 姜樂遠 ▲審判委員 成義慶 黃乙秀 金正學 李惠澤 鄭惠源 ▲計時委員 金鴻洛 鄭學溶 ▲通告委員 尹錫惠 ▲記錄委員 朴忠根 高鳳梧 熙昌 李吉用 ▲選手委員 趙南稷 玄正柱 金龍九 ▲醫務委員 朴昌薰 尹京植 宋正煥 ▲警護委員 金東敏 張權 朴榮鎭 朱興根 鄭賛說 成世慶 申一

名譽의本社方社長優勝盃

금번 국제권투전을 더욱 의의잇게 하기위하야 본사 사장 방응모(方應謨)씨로부터 당야의 우승팀에게 수여할 우승배(優勝盃)를 기증하엿다



◇練習中의兩軍◇ 【上은=比律賓軍 右로부터 캐스트로、쿠나난、가부리엘、라라자박、올리나=諸選手 下는=朝鮮軍 右로부터 李成煥、崔達煥、朴龍辰、金昌傳、朴春錦=諸選手】

比島選手一行
今夜歡迎會
午後六時半明月舘에서

수만리 바다길을멀다아니하고스포ー츠를통하야 우리와 친선을 비저내일 비률빈권투선수일행에대하야는 조선체육회와 전조선아마추어권투련맹에서 공동으로 주최를하여 다음과가티 환영회를열어 선수들에게 위로의 하로밤을 이바지하기로되엇다사게의동호자는물론일반으로 다수 한잡석이잇서될수잇는한도로 성황을이룰환영의밤이 이루어지도록수속치에서는 희망한다고한다

時日 二十三日午後六時半
場所 市內敦義洞明月舘
會費 一圓五十錢(當夜持參)

主婦不注意로
小兒가飮毒
양재물을몰으고먹고
三歲兒가生命危篤

어머니의부주의는 또자식을죽일 다 위험한음식은 기피치어들것이다 이십이일오후한시경에시내 당주동(唐珠洞)사번지무영영(牟榮永)의삼남일성(一成)(三)은 자기집에서 빨내를하려고사다둔양재물덩이를 과자인줄알고 집어먹고 그만업이피루석이가되여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발견하고소동을이르켜서 공부근병원에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朴應甲出監

함북회령읍오동(會寧邑五洞)사십삼번지 박응갑(朴應甲)(三七)은 지난소화팔년십이월함북회령에서 합북공산당사건에관련되여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이년륙개월의 언도를밧고그간서대문(西大門)형무소에서 복역중이십삼일오전열시에만긔출옥되다

電車中에서
二百圓盜難

수원군동탄면영천리(水原郡東灘面英川里)일백 사십팔번지 박승빈(朴勝斌)(四〇)은 이십이일오후세시에 룡산역(龍山驛)아페서전차를타고 종로네거리 까지오는동안에 호주머니에 너허두엇든현금이백여원몽치를 그만일허버렷다고한다 보고를 바든종로서에서는 방금각처에 수배하고범인을찻는중이다

女給가지고言爭
畢竟短刀로殺人
日本內地人이朝鮮人을刺殺
昨夜龍山大島町에서

어엽븐녀급 하나를사이에두고절은사나희 네사람이두사람식두패로 갈리여질투의 싸홈을하다가드듸여 한사람이날카로운단도에 심장을 찔리고 현장에서즉사한사건이 발생하엿다=이십삼일밤열한시오십분경 마뢰가잘률어고요한때에 룡산대도정(大島町)삼십오번지 평민식당(平民食堂)압길거리에서 부내미생정(彌生町)산(山)구번지리태석(李泰錫)(二六)은그동리십일번지전긔직공향월광언(香月光彦)(三二)에게날카로운일본단도로외인편가슴심장부를찔리워직사하엿는데경과를드건대피해자리태석은그의친구인부외룡강면염리(龍江面鹽里)김창성(金昌成)(二三)과함께 전긔평민식당에가서술을먹다가 그식당녀급×표와사소한말다툼을 하고잇는때에가해자는그의친구남대문통(南大門通)삼정목이십칠번지 오복행상(吳服行商)대긔호부(大崎虎夫)(二一)와함께 그식당에 들어와서말다툼하는것을 가로마터가지고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이 두패가되여 서로싸우게되어 필경흥분한 피해자리태석을끌고 길거리로나가서 품에감추어가지고잇든일본도로 리태석을 찔러즉사케하고 어데로도망하엿다 때마침 룡산경찰서사법계서전(西田)순사가그곳을지나다가 향월의 친구대긔를체포하는일방 본서에급보하야 서에서는이십삼일오전한시경에비상소집을하고 서장 사법주임이하총출동하야 지명수배를하려는때에 가해자향월은 어데서옷을가라입고 경찰서로차와서 이에범인은 모다검거되엿는데 피해자의시체는 경성지방법원검사국흑뢰(黑瀨)검사와 대총(大塚)의사의 검시가잇슨후 이십삼일오후대학병원에서 해부키로되엿다 가해자는 경찰에서취조중이다

大正九年出鄕
上海서活動
고향에는로부모가잇다고
李光福의過去生涯

【海州】 긔보=방금해주 경찰서(海州署)에 인치하고황해도경찰부고등과(高等課)에서 취조중인 조선××운동의거두요항해도백마권총(白馬拳銃)사건의 수범인리광복(李光福)(四〇)사건에대하야는 그의학력급경력을보면 그는어려서는한학을공부하고 십팔세부터개성한영학원(開城韓英學院)에 입학하야 이십년후에중도퇴학하엿다가 이십세시에 해주도립양잠전습소(道立養蠶傳習所)를마치고금천군(金川郡)양잠지도원(金川郡指導員)으로일개년간 잇다가 수안군(遂安郡)으로전임되어 일개년후에 퇴직하고금천군호현면(好賢面)서긔로잇다가대정구년 오월경동서긔를 사직한후 조선××운동에 참가하야활동하엿다 그런데그가족관계를보면 검거되기전까지 현주소로되여잇든 상해법조계신부로마랑로협성리(上海法租界神父路馬浪路協成里)상호에는안해와 장남과차남과 딸둘이남엇녀가잇고 고향인금천군호현면에는 팔십오세의 아버지와륙십칠세의 어머니가실제등가솔이잇다한다

監獄사리前後七回의
當代의잔발잔
지금까지십사년동안살고
다시窃盜하고監獄行

【平壤】 감옥사리 십사년 그러고도 다시 감옥으로 가게된조선의『잔발잔』이잇다 그는 평양부순영리(巡營里)백삽십이번지김몽원(金蒙元)(四四)이라는절수로지난 이십오일 단오명절노리로 친구들과 밤아홉시경부내 죽전리(竹典里)음식점에서 술을먹는중경성부 청진동(淸進洞)홍봉형(洪鳳衡)의 주머니에서 회중시게시가십오원짜리를 훔치고 그뒤십이일오전팔시경 일하러갓든주인집에서현금십원팔십전을훔친것이 수일전평양서원에게발각검거되엿는데 지문(指紋)조회결과 그는대정이년 시월십오일 진남포(鎭南浦)형무소를 나와 해주(海州) 경성(京城)등 형무소려행을하며 복역함이 륙회로 금년삼월구일경성서대문형무소를 나오기까지전후십삼년간 감옥생활을하고 다시일곱번재 감옥사리를 하게된 것이라한다

大同郡에火災
五棟全燒

【平壤】 십구일오전십일시대동군대보면 안청리(大同郡大寶面安請里) 이번지농업장성연(張聖演)집에서 닭집에 이가끄리는것을불로소멸식히려다가 발화되여동가옥을 전소하고 다시린가로연소되는것을 동리사람들이 달려드러 진화에 전력하엿스나 이호오동을 전소식히고 오후세시경진화식혓는바 손해는 약팔백원인데 도야지도 일두타죽엇다

自動車가顚覆
一名死亡六名重傷
平北碧潼郡下國司嶺서事故

【碧潼支局特電】 평북벽동(碧潼)다전(多田)자동차부 평북제삼백이십삼호차가 이십삼일 오전열한시경 벽동면 국사령(國司嶺)에서 전복되여승객중세명은 중상을당하고 세명은생명이위독하며한명은현장에서 즉사되엿다

渡船이沈沒하야
船客四名이溺死
달은六名은겨우救助되여
江界郡前川面의慘變

【新義州支局電話】 십구일오후두시경에평안북도 강계군전천면흥동항참(江界郡前川面興洞項站)의도선장에서 선부김태윤(金泰允)(四〇)이가승객구명을싣은 나루배를저어가다가 언덕에서십미돌쯤되는곳에서 승객의요동으로물이들어침몰하얏는데 최태영(崔泰永)(四〇)외세명은 빠저죽고기타는 부근부락민에게구조되엿는데 경관과주민이 협력하야사체를수사중이나 련일의장마비로 물이붙은지라수사가극히곤난하다한다

運動競技欄

女子庭球리ー그
京女高普連次優勝
淑明女高는第二位에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의 京城女子中等學校庭球리ー그戰第三日은 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構內選手코ー트에서 淑明對第一高女 同德對第二高女 進明對女高普의對戰으로擧行되어 淑明女高第二高女의 戰勝으로 終了되엿는데當日의 戰績은다음과갓고 總成績으로 五戰五勝의 女子高普가連二年優勝을하엿다

【淑明】【勝】【一女】
【第一라운드】
×(片貞子 李圭濟)1…4(佐藤 本山)○
○(趙玉姬 嚴敬媛)4…1(牧野 江川)×
○(梁福順 劉慶鐘)4…1(野路 額川)×
【第二라운드】
○(趙玉姬 嚴敬媛)4…2(佐藤 本山)×

【女高】【勝】【進明】
○(吳在熙 李春順)4…1(崔順玉 黃玉樓)×
○(韓貞順 林惠王)4…3(申龍姬 □鍾淑)×

【二女】勝【同德】
【第一라운드】
×(藤本 矢部)0…4(張瓊煥 李妍世)○
○(神保 古賀)4…1(姜奉恩 朴順天)×
×(木村 近藤)0…4(姜運官 吳鳳雲)○
【第二라운드】
○(神保 古賀)4…0(張瓊煥 李妍世)×
【第三라운드】
○(神保 古賀)4…3(姜運官 吳鳳雲)×

◇總成績順位

順位		戰	勝	敗
1	女高	五	五	○
2	淑明	五	三	二
2	二女	五	三	二
3	同德	五	二	三
4	一女	五	一	四
5	進明	五	○	五

今日의運動

▲比島對朝鮮國際拳鬪戰은 午後七時半부터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 ▲中等野球決勝=徽文對中央戰은 午後四時半부터 延專球場에서

天氣豫報
曇一時晴

滿洲方面의氣壓配置는 不安定하며 高氣壓은黃海道와滿洲中部에잇서 上海西方에잇는것은徐徐히東進하고잇다 滿洲는晴 朝鮮은曇하야處處에小雨가잇스며日本本土西部에는曇하다 明日은曇天이다

昨日最高 三五度
最低 一六度八
今朝 一七度八
今日正午 二三度三

全朝鮮對全比律賓 對抗國際拳鬪戰
指定席 1.50 普通 90 學生 50
=明廿四日午后七時半 京城運動場=
主催 全朝鮮아마듀어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有望한新職業 小資成功
中野米國理學士 責任指導

去月利益金百六十圓餘
通信敎授로는不安하다고生覺하엿더니先生의敎授로훌융이完成된粉末石鹼及洗髮粉을近處化粧品店에가저간즉化粧品店主人은이것을試験하야보고이粉末은거품도잘나고、잘감긴다고칭찬하면서五十袋를商店에두엇더니곳賣切되엿슴으로注文을바더빨리製造하기에困難하엿더니只今은父子三人이깁부게製造하야先月에는利益金百六十餘圓이잇섯습니다(正村大吉)
一日平均十箱式팔여
其後오래積阻한失禮는惡恕하소서其後各方面에努力한結果비누나크림의販路가大端擴充되고非常히有理性을닛기고잇습니다。이대로가면오는夏期부터서는小生혼자製造하여서는需要에다應치못할지몰으겟다고生覺하야요ー즉先生의恩澤을깁버합니다。會員中에서製品의販路가업는분은언제나販路의相議에應하겟사오니여러분은알여주소서요새의賣行高一日平均十五돈도石鹼石油箱十箱子입니다。(宮本瀬)
小資本新職業으로서의 粉末石鹼의製造
粉末石鹼은無限한需要와廣大한販路를가지고製造者는적으니將來益益有望하게됩니다。都會地方을不問하고누구나簡單히되며만이남고小工場的으로하면月二三百圓의利益을어들것은決코難事가아닌새로운職業이다。外敎授의利益이만흔各種製造法을獨特한敎授法으로써通信敎授는一週間、實地敎授는三日間에速成敎授를하고永久指導後援함
好期는只今!!
實驗原料 無料進呈 의大特典잇슴
(說明書無代進呈)
名古屋市東區西裡町一ノ六五 中央化學工業研究所

奇人神談의主人公
東洋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姜南月先生)
姜南月은果然어떤한才士인가그의빗나는두눈이사람을대하는즉시過去現在未來를선듯判斷하는朝鮮이나흔天才觀相家이다그의神驗은一般識者의定評이잇스니장황히말할필요업고、失敗와煩悶을곳와서開運成功의길을뭇고、將來의吉凶을미리알고、事業에圖謀하라、過去現在未來、總論、前途方針、適業指示、經營事業의成功如何、橫財運의時機如何、結婚問題의解決、其他人事百般에永遠한一生의細評을하는料金普通一圓、上細評二圓▲地方은料金과生年月日時分을明記送하면、詳細答送하오(寫眞添送亦可) 父母及夫婦先生은奇門斷易法으로、親切詳細
京城府昌信洞六八十番地 東大門越便 時計房側처 골목으로한참을나옴
姜南月觀相所

秋期菜種特價大賣出
內外菜種 農具肥料
特約店大募集(目錄請求次第進呈)
開城府東本町通
開城種苗合資會社
電話二七八番·振京九二九五番

이마즈파리약으로 새면바리 이를全滅
入浴前에이마즈파리잘는가루약을부리어잘부비고浴湯內에서씻스면고만입니다。殘存卵은五六日後다시返復하면完全히全滅、費用은僅一錢以內。이마즈파리약은目下五十萬圓大景品贈附出中이오니지금사시면매우有利합니다。全國藥店에有함、但 効力업는類似品이잇슴、品切時는、大阪大仁本町三今津化學研究所로。

胃腸에 わかもと

肺病
近代醫藥學이極히發達되엿다그러나肺結核(肺病又는先天不足又는虛勞)에는완全한治療法과藥劑가發明되지못하엿다그리고將來에도化學的藥物에肺結核完治劑가發明되리라고보나何故오結核菌은누구나感染되여잇다(사람마다頸部에림프腺이잇는것과如히結核菌에感染되여잇다)그러나사람마다肺結核에걸니지안는것은個體마다菌에對한抵抗力이强하기때문에菌이永久히潛伏되여잇다가무슨原因으로因하야抵抗力이弱하게되야結核菌의繁殖을防止치못하는까닭에이것이肺結核이다故로此를治療할目的으로殺菌劑를用하는것은 甚히危險하다 何故오…
…『活力』이다…
○『活力』經驗者의謝禮○
釜山府草梁町 回春藥院內 肺結核根絕策研究所
本人의敎會內에一少年이昨年九月頃에肺炎에걸녀서某某病院에서診療를밧으면서七十餘圓을消費하엿스나身熱惡寒咳嗽(夜間은咳嗽로因하야全혀睡眠不能이엿습니다)食思缺乏全身倦怠呼吸困難喘息等一般症狀이亢進하야甚히危險하엿슴니다同時에本人이『活力』을用하라고勸하고곳二日分을사서服用케하엿더니잘도잘수업시나는咳嗽가輕快되고또一般諸症이完然히輕快되기로其後六日分을더服用식힌結果完全히健康하게되엿슴니다今春에至하야는더욱健康하야…
釜山府文部町五八六 一 幸 □

筆生
遠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모되는趣味와實益具備學生婦人婦女子에最適한일 無休永續할高資한분에依賴합니다 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タツミ KB型
小型發動機 代理店募集
好評嘖嘖四海君臨하는本機의品質機能形狀을보고感嘆치안할이업다

ヒユーガルポンプ 精米機各種 在庫 乞照會
大阪市浪速區稻荷町一丁目
水田發動機工作所
電話櫻川二九三七番

京城 金 金銀 地金 貴金屬 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京城明治町
高價
電話本局七四番

社宅六十五戶에 水道電燈을斷絕

그중에는同胞가二百五十餘名

斷不容貸할辻紡怪擧

【京都】경도시중경구중신도산명정(京都市中京區中新道三明町)에잇는 신빵적회사사택(辻紡績會社社宅)에거주하는 륙십오호사백여가족(그중에동포삼십구호이백오십여명을포함)에대하야 동회사에서는 지난일일부터 돌연수도(水道)와전등(電燈)을단절하엿는데 사백여명구호들이 거주하는신명정일대는 밤에불이업고 먹을물이업서 암연히암흑을면출하엿다 이제그내용을조사한즉지금으로부터이년전즉소화오년십이월에 동회사에서는불경기라는리유로직공대정리를 단행하게될때에이개월에궁하야 쟁의(爭議)를계속하엿스나 결국직공들의 실패로대량의 해고자를내이고말엇다 그해고를당한 조선인일본내지인합륙십여명의직공 사백여가족은졸지에 생로를일코 엇지할수업서 그대로 동회사사택에서 지나오면서 루차동회사에 유예를탄원하엿는바 회사측에서는 지난사월말일이내로 단연퇴거하라고명령하엿슴으로 주민일동은 유예를더주면 자차퇴거하겟다고 탄원하고 방금퇴거를 준비하고잇는중 동회사에서는 오월일일부터돌연수도와 전등을 단절하는 가혹한 수단을취한것이라한다이 급보를접한 소관굴천경찰서(堀川警察署)에서는 수도를단절하는 것은 인도상문제라하야 회사에 엄중경고한결과 수도는단절한지 사일만인 사일오후세시에야 겨우급수를 시작하엿스나 그후로는 매일아침과 정오와저녁삼회에각한시간식바게는 급수치안흐므로 날로심하야오는 더위에 먹을물이업고 목이말은 사백여주민은 실로사선에 직면한중 더욱장질부사 이질등전염병까지발생하야 참으로목불인견의참상에빠젓다한다이에대하야주민대표리문서(李文瑞)고남추일(高楠秋一)량씨는다음과가치말한다

우리들은 십여년동안을 회사의직공으로 일하다가 오년전에불경기라는 리유로 전부해고를당하고 말앗습니다 그후 창술이 갈곳이업서 할수업시 사택에 그대로잇스면서 집세 수도세전등세 전부를회사에지불해오든중 근간에는 회사에서집세전등세 수도세 전부를 밧지아니하면서 떠어노코나가 달라고만 하니륙십여호 사백여가족이 줄지에 어대로나갈니까 그럿타고 전등과수도를 단절한다는것은 참으로가혹한 일이라고 안이할수업슴니다속말하자면 우리사백여명사람을 이더위에 목이말라서 죽으라는것이안임니까? 우리는언제까지든지나갈도리가 되기까지는 할수업시이곳에잇슬수바게 업슴니다운운

平南道八大懸案 促進運動의猛烈

二十一日期成委員會開催코 陳情委員七人을選出

【平壤】평안남도의중대현안을달성하고저 결성된평남중대현안기성회에서는이십일일오후네시부터철도호텔에서 개최되여 송정(松井)고성회장외에
▲安藤知事▲河野內務部長▲高橋平壤府尹▲八島土木出張所長▲吉永鐵道所長▲福島平壤商工會議所會頭▲吉田合電專務▲富田▲松屋▲稻葉▲李基燦▲金能秀▲朝倉鎭南浦府尹 ▲李鍾燮▲重技▲象山
씨등이십이명의 출석으로 평남지방 종래의 중대현안인 다음비건을 명년도예산에는 꼭계상하도록 총독부당국에 요구하는외에 다른네가지중대현안에 대해서도 토의한바이섯다
▲平壤大同江第二人道橋架橋希望의件
▲鎭南浦海陸設備聯絡改善要望의件
▲普通江改修要望의件
▲平南道廳舍改築의件
이상 비건은 만난을 배제코 예산에 계상을 목표로 금후맹진키로되엿고
▲鎭南浦港第三期築港工事完成要望의件
▲平壤驛改築要望의件
의 량건은 요망관철을촉진키로되엿는데 이두사업은 각기관련된사항으로 만포진선종단항(滿浦鎭終端港)으로써의 진남포와 보통강반일대의 공장지대완성시에 서평양과의 련락을 고려하는 대평양역은 당국의 선처를 기대하도록 요망하기로되엿고
▲高等工業學校設置要望의件에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을 작성하여 요망하게하엿스며
▲送電幹線低廉電氣供給要望의件도 중대현안이므로 요망을 맹렬히계속키로 되엿다 위원회로서는 금후 실행방침을 확립하고 명십일년도예산에는 꼭계상되도록되여야할 중대현안이 네가지나 되는터임으로 예산편성의 직전인터이라 유예할수업서 상경위원을 선정하여 총독부에 평양을출발 요망진정키로되여 그결과가 주목을끌고잇다

上京委員
▲松井▲內田▲李基燦▲稻葉▲福島(平壤商議)▲象山▲鈴木(鎭南浦商議)

地方人事

▲劉致乙氏(朔州郡勞務主任)新任人事次本社新義州支局來訪
▲韓鼎文氏(原州文廟監理敎會傳道師)新任人事次本社文幕分局來訪
▲金瀬濂氏(安東郡農務官)新任人事次本社郭山支局來訪
▲山本梅男氏(永川煙草耕作組合理事)新任人事次 本社永川支局來訪
▲崔瑢煥(下東面長)新任人事次本社下東分局來訪
▲崔秉協氏(忠北道視學)新任人事次本社淸州支局來訪
▲姜信昌氏(忠北淸州郡屬)同上
▲古賀警部(淸州警察)鎭川警察署長으로榮轉人事次同上

會寧에染病猖獗

痢患者等四十名에 十九日現在死者六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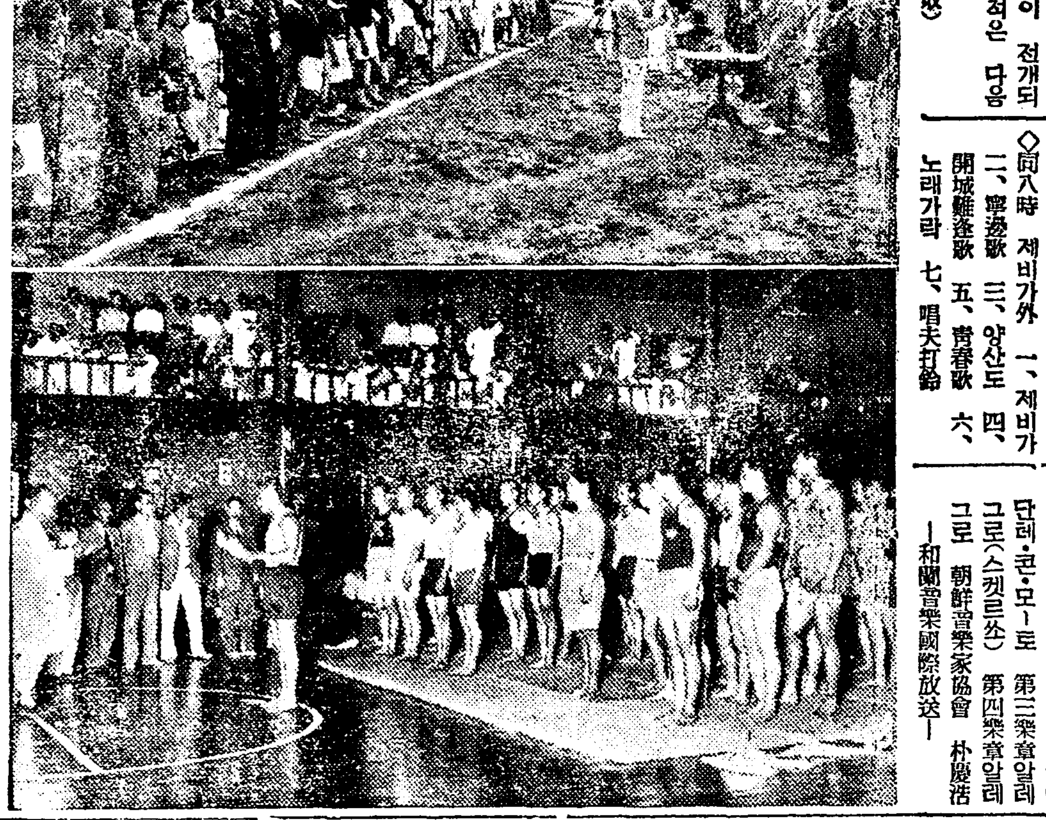
【會寧】지난오월하순부터 회령일대(會寧一帶)에는 뜻하지안튼 괴호가습래하야 적리(赤痢)환자가속출하던중 지난금월초순부터 더욱불순한기는장마가시작하며 더욱전염되심하야 현재정리환자 삼십명 바라지부스환자 십명으로 환자도상당히만흘 아직미판명 모양이라하며 지난십구일까지의 사망자가 륙명이며 방금위독한자가 이십명이나된다고한다

畿湖蹴球第一日

二百健兒參加裡에 壯快! 肉彈戰展開

【永登浦】귀보=영등포 체육회(永登浦體育會)주최와 본사영등포지국(本社永登浦支局)후원의제이회긔호축구대회(第二回畿湖蹴球大會)는 예정대로 이십이일오후한시에 영등포맥주회사 광장에서 개최되엿는데 정각이되자 이백여명 선수들은 필승의기세로 장사의행렬을지어 심판부장김영인(金永仁)씨의 인도와영창의숙(永彰義塾)악대를선두로장내를일주하고대회장남정채(南廷彩)씨의 정중한개회사가끗난후전회우승팀인 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로부터우승기반환이잇섯고 이어서선수대표고근산(高權山)군의 선서문랑독과심운영(沈雲英)심판의 주의가잇슨후 참가된십구단체의 각각패긔를자랑하는 육탄전이 전개되엿는데 첫날의경긔성적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敗)

永 登 二—○ 龍 山
輝 安 二—一 峴 友
南自B 四—○ 西 界
孔 德 一—○ 三 光
永新A 二—○ 永新B
安 養 二—○ 鐵 道
蓬 萊 一—○ 進 活


寫眞—(上)畿湖蹴球大會入場式(下)全朝鮮씨름大會場 (本面記事參照)

二十三日(日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齊唱 神思少女會 伴奏尹貞植
◇同六時五五 心田開發講話 基督敎倫理再考 鄭 泰 熙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寧邊歌 三、양산도 四、開城難逢歌 五、靑春歌 六、노래가락 七、唱夫打鈴 玄山玉 細笛 高 載 德
◇同八時三〇分 短簫獨奏 一、진양조 二、중모리 三、휘모리 短簫·韓文淑 杖鼓·金湖史
◇同八時四五分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 交響曲 第五交響曲(運命)(倫敦交響管絃樂團 指揮·빠인가르트너) 第一樂章알레그로·콘·브리오 第二樂章안단테·콘·모ー토 第三樂章알레그로 第四樂章알레그로(스켈르쏘) 朝鮮音樂家協會 朴慶浩
—和蘭音樂國際放送—
◇同九時五〇分(東) 國內放送
◇同九時五五分(東) (和蘭으로부터) 메ー르만演奏
◇同一〇時五分(東)合唱 一、우리와바다를뺏는者는누구냐 ー레ー스키編曲 二、울니는북(俗謠) 三、작은루기(同) 四、구루마꾼노래(同) 五、西班牙大帆船(同) 王立아플르몬男聲合唱團
◇同一〇時二〇分(東)吹奏樂 一、『페토·헤인和蘭狂想曲·안토ー이作曲 二、WE行進曲…란주에그作曲
◇同一〇時四〇分
◇同一一時〇分 (東)國內放送

二十四日(月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고기(魚)밧주는處女 白 岳
◇同一時 園藝講座 花園에對한常識(一) 尹 源 善
◇同六時三〇分 童話 崔 泳 柱
◇同六時五五分 經濟解說 取引所에對하야 全 弘 鎭
◇同八時 講演(東北大助敎授工博宇田新太郞) 歐米各國의無線의發達에對하야 譯講 韓 碧 波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뻐꾹새』 자넷트·막스作 韓相稷譯 【配役】 떼비트…姜義斗 아ー니…崔明愛 라우리…李仙惠 주우도…金英 牧師…南海遼 朝鮮學生藝術劇場 指揮·金炯斗 効果·金順益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楚漢歌 二、唱劇調 華容道 金昌龍 鼓手·丁元燮
◇同九時三〇分 流行歌 一、그리운아리랑 二、別恨 三、鶯 四、無情歲月 五、新二八靑春 六、新사발가 鮮于一扇

六月二十五日(火曜)

伴奏 CK管絃團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길念佛 二、打鈴 三、山念佛 四、靑春歌 五、朴淵瀑布 六、아리랑 奚琴…池 龍 九 短簫…崔 壽 成 細笛…高 載 德
◇同一時 園藝講座 花園에對한常識(二) 尹 源 善
◇同六時三〇分 四重奏 京城四重奏團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人生과微物(一) 中央高普 白 南 奎
◇同八時 講演 海軍軍縮問題의新傾向 朝鮮日報外報部長 洪 陽 明
◇同八時三〇分 새타령其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吳翡翠 愼 淑
◇同八時四五分(東)管絃樂 베ー토ー벤連續演奏(第六回)交響曲第六番 田園F長調 第一樂章 田園에到着한明朗한感覺 第二樂章 냇가의景致 第三樂章 農夫의즐거움 第四樂章 暴風 第五樂章 牧歌、暴風後의깃분感謝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레오니ー드끌로이차ー
◇同九時三〇分 古談 太平春 金 錫 九

曆 六月廿四日(月)

舊五月建壬午(大)廿四日 辛未·土·弱·除
●祭祀·嫁娶·移徙·裁衣·動土·上樑卯時·納財·安葬에宜함
▲芒種 七日(舊五月初七日)
▲夏至 二十二日(舊五月廿二日)

그女子의一生 【139】

春園 作 / 夕影 畫

금봉은 목이 한편으로 쏠리며 어린애를 떨어터리려하엿다 그것에 안졋던 광진이 가엽는한팔로어린애를 밧고 한팔로 금봉의 허리를 붓들엇다.

『현귀가 나시는 모양이로군!』하고 광진은 그제야 일어나는듯한 명귀에게 금봉을 맛기고 어린애는 제가 안은채로 안마당으로 들어가다가 하인에게주엇다.

금봉이 사람들은 파흥이 되어서 서로 바라만보고 안젓다.

『어 내가 갈 시간이 지낫는걸.』

하고 맨먼저 일어난것은 김광진이엇다.

『가려 가세. 주인이나 나오거든 가티가.』

하고 못드는것을 돌지아니하고 김광진은 명주와 집에서 나왓다.

광진은 사랑으로 안국동쪽으로 향하고 걸어올라오면서생각하엿다——

『만이지.』

광진은 이러케도 생각해보앗지마는 『내자식』『아비와 딸』그리하고 『딸의어미』, 이러한관계는 도저히 인력으로 끈허버릴수업는 신비한 힘이 잇는것가탓다. 아비의 본능이라고할까 평소에 인생이란것을 깁히생각해볼 필요도 업는것으로 알고, 호의호식에 잇는술먹고 생기는계집 희롱하고 힘들지 안케 병도 업시, 걱정도 업시 애쓰는 일도 업시 외입나는 일도 업시 순탄하게 공원에 산보하는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광진에게도 정선이라는 조고마한 생명의존재는 마치 간장이나 쓸개주머니에 맷친 돌모양으로 가끔가다가 뜨끔하고 견듸기어려운 아픔을주엇다.

『남의 안해의 속에서 나온내 딸』

이라는생각은 광진에게 일종의 모욕감을 주엇다.

『금봉이가 문을 열고들어오는 길로 제일 먼저 눈이 마조친 것은 네네 내 눈과마조칠때에 금봉의 눈이어떠케 그러케 날카로왓슬까. 날카롭다기보다는 마치 오 이제야 너를 만낫구나, 하는 눈이엇슬까. 그리고 그어린애를 바다안을 때에 내가슴의 설렘. 그 어린애는 내자식이다, 하는직감! 허 이상도한 일이로군.』

김광진은 자식이 업섯다. 본처는 소박으로 서양다녀온 후로 한번도 방을 가티 한 일이 업고 서양녀자 하나를 다리고 왓던것도 일년동안 잠다가 울고 상해로 달아나버리고 말앗다. 그러면 본처는 웨 이혼을 안 하느냐 하면 그것은 양반의 체면이란것을 압세우는 가풍때문이오 첩장가를 웨 안드느냐 하면 그것은 영국식 신사도에 어그러진다는 이유로서엿다. 그는 도로혀 륙별히 안해나 첩이라고 이름지어노치아니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로 이틀 희롱하는데 재미와 자유를 느꼇다. 금봉에게 대한것도 그것이엇다. 그에게는 사랑이란 일종의 유흥이엇다.

그러나 만일 금봉이가 나흔 어린애가 제 자식이라 하면 여긔는 심상치아니한 문제가 잇는것갓다.

『그거 모른체 하면 그만이지 야종에금봉의 입으로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나는 모른다하면고』

서양의 문학을 읽은 광진은 『운명』이란 말을 생각하엿다. 만일 정선이라는어린애가 진실로 제씨라고 하면 그것은 무서운 운명의작희엇다. 그아이는 일생에 아비아닌 사람을 아비라고 부르고 정녕 아비를 가른 장안에 두고도 아비인줄 모르고 일생을 갈것인가. 제 딸인줄 분명히 알면서도 아비로라 못할것인가. 만일 이 어린애가 난것이 운명의 작희라 하면 이것은 암만해도 몃 막의 희비극의 서막인것도 가탓다. 손명규—리금봉—김광진—정선—이러케 생각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무슨 운명이 꾸며노흔 무대에 출연할 배우인것만가타서 광진은 무슨 검은 손이 뒤통수를 내려누르라는것을 느끼는것갓하서 몸에소름이 끼첫다.

광진은 안동 네거리를 지나서 재동을 향하고 걸음을 빨리걸엇다. 이 불쾌한 생각을떨어버릴량으로 고개를 흔들고다른 생각을하랴고하엿다. 그러나 아까 우연히 팔에 안앗던 그 어린애가 끝끝내 어두사록더 눈에 밟혓다.

광진의 머릿 속에는 『Sin Punishment-Curse-Catastrophe』(벌, 죄, 저주, 파멸)」이러한 영어 단자가 떠올랏다

『내가 이러케 마음이약한가』하고 광진은 단장을 내어두르며 혼자 중얼거렷다.

新日本의傑作品
품질은 씽가ー미싱과 同一
그價格은船來品의約半値
PMLTD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國產蛇目미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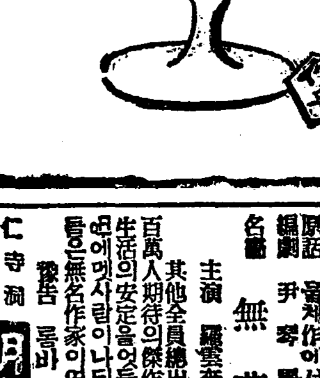
新日本의傑作品
國產 蛇目미싱은萬國標準型인 故로모든部分品도 世界到處에서隨意로살수잇슴니다 特히我社東京、大阪兩工場에서年產額은巨額에達하고從業人員은四百名今也自他가共認하는東洋一의미싱製造會社가되여잇슴니다.
優秀 國產品으로特히理想的이며價格은外國品의約半額이되는것도國產인때문입니다、지금은「싸고도튼튼하다」는評判이 더海外各國으로더더輸出되는國產미싱의最高位를占하고잇슴니다.

全鮮進出을爲하야 一郡一店의代理店을 急募 함
本社 는自他가共認하는東洋一의미싱會社이오그事業은 甚히將來性이만흔것입니다. 即一個의事業을計劃하는경우에는 提携할것은最良의相對者가아니면안됩니다.
本社는 午前六時事業의先導에서서『明日이잇는會社』로그最適任이니貴下의期待에十二分으로相副할것을確言하는바입니다.
늘어가는것과 提携하시라
代理 店은本社의出先代表者인 의各地에區域을制定하야代理店을 募集함에際하야도事業에身命을다하야長久히提携하시기를約束할수 잇는人을求합니다.
一郡 에一店에標準삼는故로希望區域을申込하시면年賣上豫定數及特定價格詳細히回答하겟슴니다代理店希望者는大阪支社 朝鮮代理店係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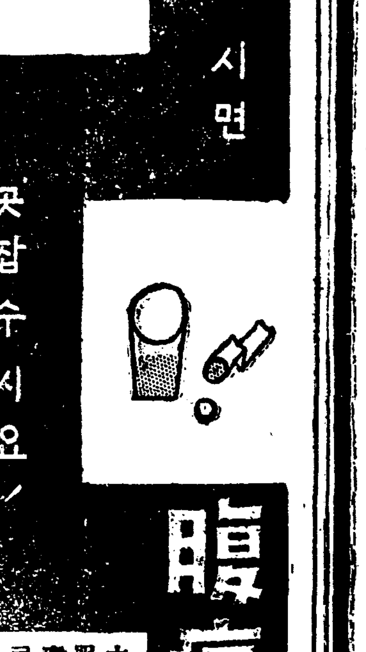
東京·大阪
國產パインミシン株式會社
本社 東京市中野宮園町
支社 東京市丸ノ內昭和ビル
大阪支社 大阪市北區絹笠町大江ビル 電話北(二二二五)(三二六八·三一六九)
各地支社 京都、神戶、名古屋、橫濱、靑森、仙台、其他代理店 全國主要各地

銘酒 誠鶴
淸凉氣分에 誠鶴一杯의感激
仁川 深見釀造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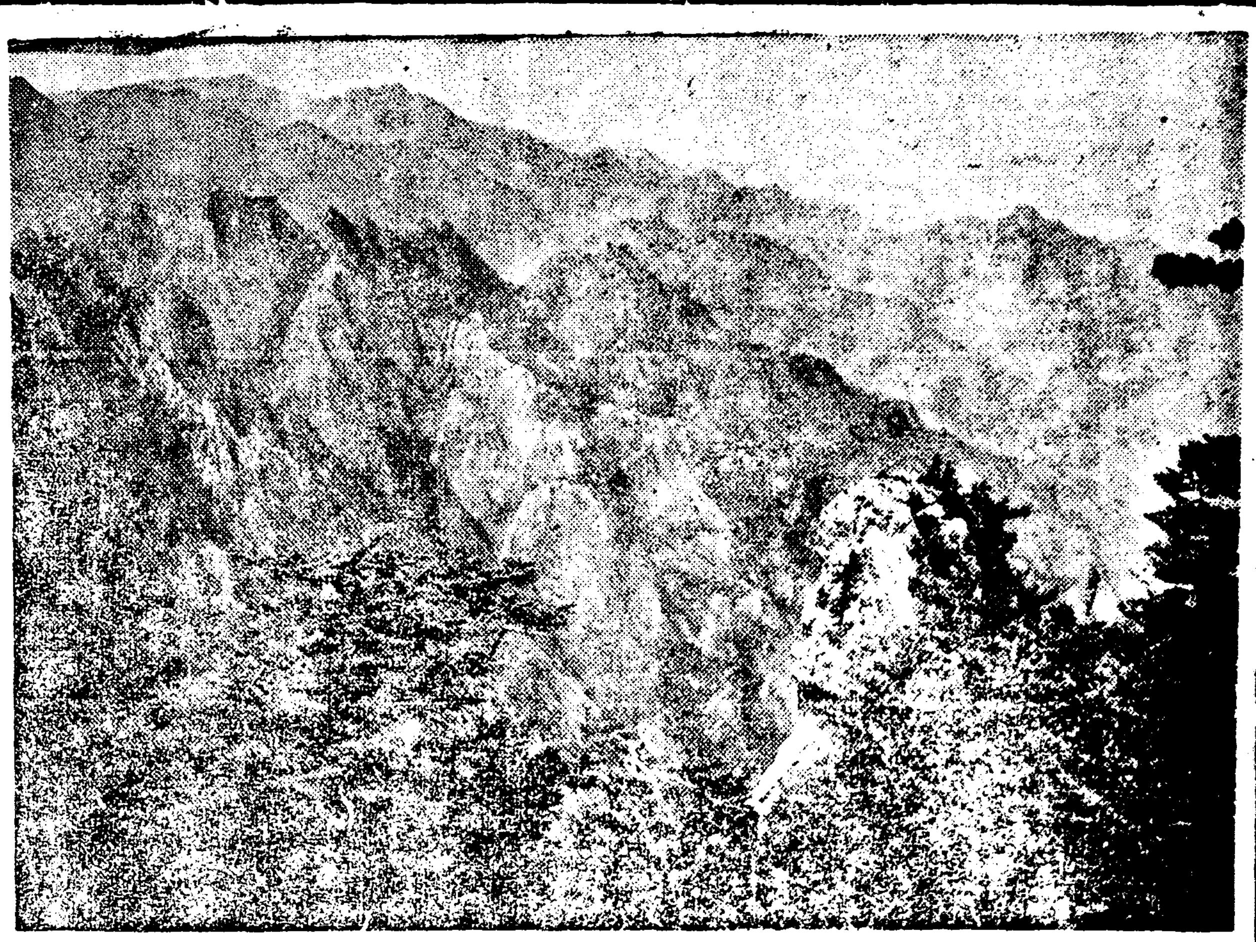
精力回復 元氣百倍
오세로 オセロ로 非常時突破
￥1.20 ￥2.00 ￥3.50 ￥5.00
各地藥店에잇슴

仁丹
밥맛나는 初夏의健康感을 滿喫식히는
仁丹의殺菌力 仁丹의消化力

全國各藥店各賣藥店에잇슴 經濟的인德用包가斷然好評

六月二十日부터特別大興行
每日三回 正午十二時 三時半 七時五十分
◎松竹키네마社特作음사운드版 淸水宏監督 代劇現 祇園囃子 高田浩吉 飯塚敏子 主演
◎朝鮮키네마社超特作 原話 윤백남作에서 撮影 李信雄 編劇 尹 琴 鳳 導演 羅 春 史
名畫 無花果
主演 羅雲奎 助演 安芳蘭 尹逢春
其他全員總出演
百萬人期待의傑作篇! 生活의安定을엇을수잇는사람이 ...
豫告 롬바
仁寺洞 電光三二六 朝鮮劇場

배가압흐시면 곳잡수시요!

腹痛タダミン 다민
大谷藥學博士創製한內服用錠劑로배압고、腸疾患、食傷에良效、따로頭痛에도듯는다민잇슴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포마ー드



◇……金剛瑞色……◇

特輯 山으로! 바다로

山岳이나흔仙女傳說

文一平

朝鮮의자랑은 山岳이다 압山과 뒷山、큰山과 적은山이 서로 얼켜 域內에 起伏하는 山岳의形勢가 마치 海上에 洶湧하는 波濤와 彷彿하야 글자대로 山國을 일우웟스니 남은 海洋으로써 자랑을 삼는다면 우리는 山岳으로써 자랑을 삼지안흘수업다。

우리는 山에서 나가지고 山에서 날다가 山에서 죽어 骸骨까지도 거기에 무드니 살으나 죽으나 終始山岳의 품속을 떠나지 못하는 山國人이니만치 山岳에 關한 아름다운 古傳說도 만히 가젓거니와 깃브나 슬프나 山을보고 웃기도하며 울기도하고 或은 山岳의美를 노래하며 또或은 詩로 文으로그美를 그려낸 일은바山岳文學도古來로부터 歌謠、詩文을 훌륭한 그冊에잇서서도 厖大한 典籍을 일울것이다 域內에잇는 모든名山을 다제껴노코 오직金剛山하나를 가지고만 論하드라도 그 三十六溪谷의 엄청난 大自然美와 아울러 거기얼킨 傳說美는얼마나 만흐냐 金剛山에 關한詩歌와 其他紀行文가튼것은 古今을通하야 얼마나 만흔지 헤아릴수 업다 이것을 모주리 蒐集하기만한진대 훌륭한 金剛山의一大文學이 될것이니 이로보면金剛山은 山岳文學으로도 寶庫라하겟고 文學은 言語의藝術이라 반드시말로서 아름답게 表示함을 要하나 크게보면 山岳自體가곳自然의 一大文章이다 이는金剛山뿐이 아니라 어떤山岳이든지 美의差는 잇슬망정 自然의 文章아 아닌것은 업슬것이다。山岳의天惠를 만히바든 朝鮮人은 언제나 山岳文學을 읽고잇는셈이다 山岳의 품에안겨서 四時의 끈임업시 變化하는 景致를 보면서 山岳이 키운 아름다운 傳說을 이야기할때 누가 山岳文學의 津津한情趣에 陶醉하지 안흘者ㅣ잇스랴 여기山岳文學의 一餘影이라할仙女의 沐浴傳說을 말하려한다

녯날 산양군이가 산양을가서 사슴한마리를 몰더니 그 사슴이 거의 못잡히게 되엿슴으로 산양군더러 일으되 나를 살려주기만하면 仙女에게 장가를 드려주겟노라 그래서산양군이 사슴을 따라서 仙女잇는데를 차저갓섯다 여러仙女가 옷들을 버서서 山上나무가지에걸고 한소에 하나씩 沐浴을 하엿다 그래서 산양군은 사슴이 하라는대로 그중 한仙女의 옷을 몰래 감초고 고요이숨어 잇섯드니 仙女들이 沐浴을 다하고나서 옷을차저입고 한울로 올라갓는데한仙女만은 옷을찾지못하야 가치 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울고잇섯다 산양군이 이仙女를 나가붓잡고 夫婦가 되자고 請하엿다 그를잘달래여집으로 더리고와서 아들딸 다낫코 아주滋味잇게 살앗다당초에 사슴이 산양군에게당부하기를아무리 夫婦가되어오래 살드라도 그옷을내여주지말라고 하엿지만 子女가 수두하니 이제야 엇더라하고 仙女에게 하로는 옷을 내여주엇드니 仙女가 그옷을 보기가 밧버서 곱입고 한울로 올라갓다 산양군이 혼자 애를 태우고 잇다가 그사슴을 다시 맛나 일으기를 仙女들이 그때혼이 난뒤로는 다시 내려오지 아니하고 물을 길어올려서 쓰는터이니 일은새벽에 기다리고잇다가 한울로서 드레박이 나려오거든 타고올라가면 맛날터이라고 하엿다 그말대로 하야 드레박을 타고 한울에 올라가 산양군이 仙女의남편이 되엿다 이것이 山岳의나흔 仙女傳說로 이름놉흔것이다。

東海의絶景 叢石亭의波濤

一步生

山이 그립고 바다가 그리운것은 何必 여름철만이 아니겟지만 炎帝의 暴威가 大地를 불지르듯 九十度百度로 寒暖計의

水 銀柱가 오르나리게되면 鬱鬱한 山間에 발길을 옴기고 浴浴한 江水에 몸을 적실생각이 自然히 용소슴치게된다 이리하야 山으로 바다로 가는 그것은 納凉을 찾고 自然美에 陶醉하려는 人間의 本能的常情에서 나온한개의 衝動일것이다

나는 元來 登山臨水를 조아하는 習性이 잇스면서 山에오르고 물을차줄 時間과 餘裕를 갓지 못햇거니와 再昨年七月 나는 東海北部線을 더듬어 金剛에 오르고 海金剛에 배를 띄운일이 잇섯다 그리하여 松田海水浴場에 때를씻고 叢石亭奇岩을 구버보기도 햇다。

×

松田海水浴場에서 며칠을 지낸 그어느날 나는 거기 三三親友와

叢 石亭 구경을하기로 定하고 우리一行은午後의 해ㅅ발을 등에지고 庫底驛에나리게되엿다 松田서 庫底까지는 한停車場 時間으로는二十分(?)假量밧게 汽車를 타게되지안는다

그리하야 우리一行이 車에올라 몃마듸 이야기하는동안 우리들은 庫底에到着하야 참외밧을끼고 東으로 東으로 발길을 옴기게되엿다

때는 暴風雨지난끗이라 도랑물이붓고 길이險해저 발을 벗고건너 庫底邑에 닷키는 아즉도 西便하늘에 해ㅅ발이 퍼그나 놉흔때엿다

元來 이 叢石亭行이 그 層岩絕壁、奇岩怪石에 부딧치는波浪을 보자는것도 重要한것이지만 그보다도 重要한것은 바다우로 달뜨는

光 景을 보자는것이엿다일즉 우리는 叢石亭의 고흔빛을 본바잇지만 달이나 해가 바다에서 떠올라오는 것을 보지못한 우리는 한個의異常한 衝動속에서 발길을옴기게 되엿다

그러나 해넘어갈 時間의餘裕가만혼지라 우리는 爲先庫底邑으로드러가 이리저리더듬어 海東食堂에서 夜飯을하게 되엿다 主人이 親切하고 飮食이 식飮食이지만 大端히 맛잇서空腹을 기름지게 채우는동안 우리는 오래못보던 新聞을읽고서울消息도 알엇다 其實 오래동안 못보든 新聞을읽는 趣味란 끗업시 愉快하엿지만 여게서 오래잇기에는 첫재 時間이 容恕치를 안헛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叢石亭을

向 하야발길을 옴기엇다 로마침 우리가叢石亭에 올라섯슬때 東편한울로 떠오르는 圓形의달이 바다ㅅ속에서 소사나왓다。

물결이 고음게밀리는 東海바다에 솟는 둥근달! 水平線과 프른한울의 限界를 뚤코 소사오르는 달빗! 무슨 神秘로운 神話世界에서 솟는듯한 달의 魅力! 아! 그것은 形容할수업는 한개의 微妙하고 神秘로운 한幅詩엿다。

저덕날 풀버레가 언덕우에욱어진 숲속에 우짓고 그 絕壁아래 바위를 때리는 물결소리가 철서덕 철서덕고요한 저녁의 靜寂을 깨치는 이때 물속에서 소사오르는 달은 고요한빗을 물결우에 조각으로 헛트다

東 天으로 漸漸소사 오른 『달이 떳네!』『달이 소삿네!』 우리들의 입에서는 아지못하게 이런소리가 흘러나왓다 其實 이光景은『粉飾업는 美』를 우리에게 보혀주는것이엿다 여기는 거짓업는 純情의 處女와도가티 바다와한울과 달이그아름다운 世界를 거칠업시 宇宙에 새로운 世界를 創成하는것이엇다

끄님업는 波濤소리에 돗고지는달빗! 거기는 確實히 純潔한그리고 純情的인 處女美가우리의 마음을 神化식혀주는것이엿다 그뿐안이라 거기는 生動하는 삶이 波濤치고잇다

오! 生의躍動! 그리고

自然 의神秘! 叢石亭의 一瞬時間은 내게는커ㅡ다란 衝動을주어 더위가 닥쳐오는 요즈음 바다의香氣가 다시금나를 誘引한다 (끗)

名山을 꿈에그린다

金石影

××兄! 나에게 山에對한이약이를쓰라고요? 아! 山이란말만하여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나는 어쩐일인지 어려서부터山을조와하엿습니다 제鄕里

伽倻 洛古都에는 名山이라 이를할 山은업스되 그래도 邑東便에 노피솟은 金城山頂 眞尖素에 올라서 옛山河을 밟으며 멀리 南으로 洛東平野 한복판을구비돌아 흐르는 洛東江三叉가水光이 接天한곳에서 바다와連한것을 眺望하는 爽快하고 浩淵한 感激에 부드치치도잇스며 西便에는『富士山』가티생긴 臥虎山에 올라 古都의 前後左右의 面貌를살펴보고 昔日의 追憶에 잠긴적도 한두번이아니오 龜首峰上에서首露王降誕神話의 幻想에 陶醉해본적도 한두번이 아니엿습니다。이어리시절에 제가무엇을 알앗겟습니까마는 그철업는 제가슴에도 그때마다 알수업시 부드러운가슴을 치밧치는

感激 과說明할수업는偉大한 啓示와 敎訓이잇는것갓습니다그려! 이리하야 氣分이 조회도 그山을 차즈며 憂鬱하고 不快할적에도 山을 차젓습니다、그러므로 大槪는 나혼자갈때가만햇습니다。그때마다 나에게는 安靜과 慰勞가잇섯습니다 그래서 山은 나의 친구가되고 벗이되엇스며 나의스승까지도 되엇습니다 나에게 업지못할 存在가되엇지오! 아 지금에 내故土를 떠난지 數十年에 그 어린 時節의 山의 追憶이 渺然합니다

××兄! 그러나 오늘날까지에 山을보고 참으로 感激하고 驚仰까지라도한것이 잇다면 그는 秀麗美와 崇高와 雄大와 壯嚴과 奇異와 이런 모든現象에 이 가슴을 놀라게한것이잇다면 中華의 古人이

願生 高麗國하야 一見金剛山이라고까지 하던 그리하야 累千載에 億千萬人에게 禮讚을 바든 우리의名山金剛이엇습니다 이山이야 제가 말하지안흐면 모르든이가 잇겟습니까? 또 한번 본이로서는 讚美와 稱頌을 드리지안는이가 잇겟습니까마는 나는 제全生涯에잇서서 이山을보고 感激을 바든것以上의 感激을 바더본적이업습니다、世上에는 듯고 想像할때보담 實際가 항상 不足한것인데 金剛만은 想像以上이엇고 꿈以上이엇습니다、山이면 山이거니 물이면 물이거니 하지마세오 山에는 草木이잇고 岩石이잇고 시내가 잇겟거니 하지마세오 이山의 작은 돌하나 이름모를풀닙하나에 이르기까지 金剛이 아니고는 볼수업는 異常하고

神奇 한것이 아니예요? 金剛을 한걸음 물러나와 보이는 草木의빛과 맛는 흙내와 흘리는물소리가 어째서 그리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서 俗世를보는것가려 俗되고 淡淡無味할가요? 말이야 金剛을 가로되 山岳美日 岩石美日 溪谷美日 傳說美 라고하야 單純히 處理한다마는 그러케 쉽게處理하기에는 넘의 感激이넘우도 크고 내버리는 너무도어리석엇습니다、內金剛의 부드럽고 多情하고 奧妙하고 淸秀한 女性的인美! 外金剛의 雄大하고 壯嚴하고 奇異하고 複雜하고 多樣한 男性的인美! 毘盧峰 노피솟은 翠山이 儼然히 內外金剛을 威壓하고잇는 威嚴! 한걸음더러진곳에 東海물결에 씻기고 씻기면서 山과 바다의風景을 한데모아 獨特한美를 자랑하는 海金剛! 이러한

調和 는 그만둔다하더라도 自然이 具備할 가지가지를 어떠케 이가티 具備하엿는지 奇蹟이라고밧게할수업습니다 山으로 有名한 瑞西를 내가본적이업서 무엇이라고 말할수업습니다마는 瑞西의 名山으로도 이以上의 것이잇스리라고 생각되지안습니다、峻險한高山이잇스매 부드러운溪谷이잇고 峻峰에 小綺인 溪潭이 玉水를 흘려거리며 奇峰妙峰에 散在하야서 奇岩怪岩妙岩을나허 이 千態萬象的存在가 渾然한 一體를 만들어 한적은 世界를 이루고 잇습니다 이世界야말로 樂園이 아니면 別有天地非人間이가티 생각됩니다。이樂園 이르는곳마다 꿈과가티 아름다운로만스가잇고 맛는때마다 四季의 特色이 獨異하니 大人의마음가티 속속되리 알기도 어렵습니다。오직한말로 表現할수업는

崇高 한자태를 [illegible] 偉大한마음으로 우러러볼때인가합니다。

××兄! 지금에 내보려는것이는 붓끄로로 敢히 描寫할수없는 金剛을 떠러질수는 업습니다。그러나 나는 다시한번 自然의 偉大함을 생각합니다。自然의가슴에 안기고 그自然의 품에 부드럽떼가려 純潔해지고 眞實해지고 單純해지고 崇高해질때는 업것지오? 나는 千秋萬歲에 沈默을 지키고 儼然히 서서 人間生活을 내려다보고잇는 山을우러러볼때 그偉大한莊嚴에 가슴이 울렁거리거니와 그山에올라 그山과사괴일때가려 내가 착하고 어진때가 업스니 나에게는 山은 다만山이아니오 흙과 돌로만든 山이아니오 靈과

精神 을담은 山이외다。마치 原始時代의사람들의 생각과도가티! 아! 山에가고십소이다 오늘에 어려시절의山과 저金剛과 내가본 모든 山을 꿈에보면서 街頭紅塵속에서 俗된 利慾에 억매어山으로더부러 사괴지못하는 이處地를 설어할 뿐이외다。

바다의鄕愁

金起林

1

날마다 푸른바다대신에
꾸겨진 구름을 바라보려
『엘레베이터』로
五層꼭대기를 올라간다…

2

파랑《파라솔》들과
汽船會社의 旗빨과
파랑《파라솔》을
《아라사》의아기씨들이
玉色의손수건을흔드는埠頭의거리에서는
바다는 海鷗의잔등보다도
노픈곳에 잇섯다。
기ㅡㄴ《세멘트》의築畵를 도라가며
갑작이 머리우에서
물결의 지저귐이 시끄러웟다。

고향은 조각지들이
아직도 밤을 깨물고노치안는 모래불에는
까치들이 모혀와서
아모도 모르는
祖國의 녯方言을 지꺼리고
남빗목도리를 둘른섬들사히를호고
힌選手의 복장을입은 蒸氣船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바다의등을 향용 기여올라갓다…

3

오늘도
푸른바다대신에 꾸겨진구름를 바라보려
『엘레베이터』로
五層꼭대기를올라간다
거기서 우리들은
될수잇는대로 머ㅡㄹ리 故鄕을떠나잇는것처름
서투른 손짓으로 인사를 바꾸고
그러고는 바다까지인것처름
소매를 칠신거뒤올리고 欄干에 기대서서
동그라케 담배연기를 뿜어올린다。

그리운海雲臺

李源朝

山에가면 바다가 그립다고바다에가면 山이그립다고 하지마는 山에도못가고 바다에도못가면 山과바다가 함께그리운것이다。아니 어느겨를에 山이니바다니하고 포스러운 소리를할것도업시 그저 어듸라도 좀가보앗스면 판에박은듯이 한갈가튼 이生活에서 다만 하로 이틀이라도 버서나보앗스면 하는것이 지금의내

心境 이다。넷날사람들은 名山大川을차저 優遊自適하는것으로 一生의行樂을 삼은이도잇다고하지마는 내야 아직 나히어리고 젓기도잇는지라 스사로 不過의人을 지어마는 그래도 지금과가티 아모짓고저 하는생각은 毫末도업지 勇氣도업고 興載도업는人造人間과가튼 生活에는 거의厭症이나지안흘수업다。

그래서 맛치 붓잡혀온새가정처도업시 蒼空을그려보듯이 내생각도 정처업시 어듸라도가보앗스면하는생각이 하로에도 멧번식드는것이다。그러나 가기는 어듸로가! 이러케되고보면 어듸도가지못할신세인지라 이전에 가보앗든 멧멧곳이 애처러운記憶가운데서 나를불러내는것이다 푸른소나무와 힌모래와 또푸른 바다가 비단물의가티 아로새여가면서 뻗처잇는 東海岸의一帶 가다가는쉬고 쉬다가는가고십흔곳! 거기도 내

記憶 에는 안흔것이아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맛치 첫사랑하든 처녀의얼골과가치 기리기리 내마음에서 잇치지안는곳 그리운곳은 저ㅡ南國의海雲臺이다。여긔를말하면 내가슴은울넝거릴만치 그리워지며 여긔를 그리워하면 내마음은 焦燥하게 가고십흔곳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때가되면 이러케가고십흔것을 다시는 한번도가보지못하고 지처진내마음은 인제는 비에저진갈메기의꿈과가티 一抹의哀愁와 感傷속에서그곳을 그리워하는것이다

五年前、여름放學을타서 집에왓슬때에 나는K라는親友의 寵請을바더서 海雲臺ㅅ길을떠낫다 말로도 익숙히듯든곳이라 烘爐火宅과가튼 都會地를떠나서 바다ㅅ가海雲臺를 간다는것은 말만으로도

羽化 하는것가티 淸爽하고 輕快하엿다

釜山에이르니 벌서 一擲의海風이 옷깃을스치는데 맛치 못헤뛰여나왓든 고기색기가 물속에드러간것가티 생긔를채렷다。곳 東萊로가서 다시 自働車로 海雲臺까지오는데는 [illegible]에서 명산에는 [illegible]가리워지고 적은황혼은 소나무끄테걸드니 가는데 제일 新奇한것은 自働車가 삭구비를하나ㅅ식돌때마다 [illegible]으로 부터드러오는바람의 [illegible]이 [illegible]하거다른것이다。맛치 우리가 어렷슬때 강ㅅ가에가서 목욕하다가보면 갑작 [illegible]에서 소사나오는물의溫度와 江물의溫度가 아주判異하게달으듯이 海雲臺가는길은 한구비 돌때마다 며스윈한바람이 구비구비사람을 마저주는것이엿다。「五月

江深 草閣寒」이라는 詩句를외워서는 시골 그바람에 부다치는 情緖를 다시생각하면 지금도 거드랑밋치선옷 서늘한것을 늣기는것갓다。

하로ㅅ밤을 벼개ㅅ머리에서 潮水의우는소리를듯고 그잇흔날아침절에 K와함께 대패밥모자로 햇살을가리우면서 두동치바람으로 海邊에나갓다。弓形으로된 浦灣이비록小規模이라고는 할수잇스나 압흐로 五六島를가리우고나서는 東으로 無邊無際하게 터진것이 廣漠한바다의늣김을주면서도 오히려 雅淡한데가잇는것이 무엇보담도 내趣好에마젓다

첫재 松島海水浴場에가면 잡되고 웅장하고 분주할뿐만아니라 地形과 海面부터도 海雲臺를 따르지못하는데

海水 浴場으로서 松島가 더適當한것은 潮水의 水勢로보아 松島가 海雲臺보다 좀穩當한것뿐일것이다。

海邊에서는 모다 海水浴服한 젊만입고 밀물의구비를 넘어가면서 헤염을쳣스나 나는본래부터 汚濁하고 小心한사람이라고 의가랭이만 처올리고 발만물에 잠것다가는 나와서 모래우에거닐곤하엿다。맛친보니 저우의 바위너덜에서 아해들이 조개를 따기에 나도 거긔한줄을 려고가서따보앗스나 몃시간을 지낫서도 얼마따지못하엿섯다。

이러케 지나기를 約一週日이나 하면서도 나는 海水浴은한번도못하엿다 그래서 나종에친구들이 그이야기를듯고 나를못난이니 견쟁이니하엿지마는 海水浴못한

海雲 臺일지라도 나는 해마다 어떼가되면 항상 그리워하는것이다。

올해나 엇더케한번가보앗스면 그리운海雲臺!

그래서 나는 때때로 묵은原稿뭉치속에서 그때에 적어두엇든 時調몃수를 차저내보고는 멍-하니 하늘만바라볼때가 잇다。

푸른 하늘이오
또푸른 바다로다
그중에 보이느니
해오래비 힌한점을
이밧게 눈갈데업스니
종일아득하여라。

바넘어 느진黃昏
모래우에 거엇는데
二三兩帆이
바람배여 오노매랑。
어즈버 저배탄사람을
물어무삼하리오

아침에 밀물나니
모래우에 김이피네
뒤도라 섯는아씨
그무엇을 생각는고
물소리 속질때마다
물려보고십더라

新刊紹介

◇言語問題 第二號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二丁目七八四 言語問題談話會發行 振替東京八二四六二番 定價二十錢(和文)

이것이 理想的胃腸藥

胃腸의疾患은健康의破產이다

慢性胃腸가다루로因하야여웨저서元氣업는사람은 勿論輕症이라고하야그대로두면、참다운健康은保全할수자업다。泄瀉腹痛에걸이기쉽은사람은豐富한滋養物도大部分體外로排泄되고따러서榮養不良이되고、體力氣力이다激減되야서可憐한健康의破產者가된다。또抵抗力의減退로諸病魔가侵犯하야드듸여그天壽를完全히못하고、슬푸게도夭折하게된다。모든腸胃疾患의治療와豫防에는現代의理想的胃腸藥柏村博士의ヘルプ를活用하시라

胃腸가다루는生命의敵

胃腸가다루를輕症이라生覺하야 等閑히하는境遇에는드듸여如何히豐富한滋養物을먹드라도그大部分은體外에排泄되야서 榮養不良이되고顏色蒼白、氣力抵抗力이다 減退하야모다惡疫에걸이기쉽고其他諸病의原因이된다。저무서운肺病과가튼것도大槪胃腸虛弱、榮養不良에基因되야잇는것은大學의統計에서보와도分明하다。

이런때에ヘル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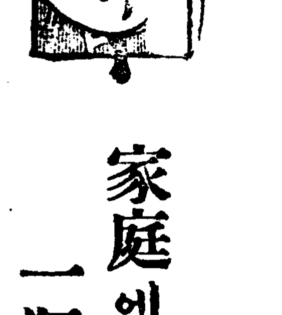
●이상히도배ㅅ속이거북스러울時……四錠
●食後엇전지배가압흘時……三、四錠
●大便後엇전지肛門이압흘時……四錠
●旅行中에는水土不服、食傷、時候不調에 胃腸허하기쉬운時 三、四錠
●急性설사腹痛時……八錠
●二、三錠의常用은健胃整腸에有効

宮內省御侍醫 柏村博士創製

ヘルプ (헤루푸)

定價 二十錢 三十錢 旅行用ポケット型 五十錢 德用 一圓 三圓 六圓

本舖 東京・池袋一丁目 津村敬天堂 振替東京八六四番



家庭에꼭 一瓶을!

腸胃カタル特効藥

フルプの適應症

▼過食▼食傷▼水土不服、時候不調▼寢冷▼냉배▼消化不良等으로생기는

◇설사◇腹痛◇吐瀉
◇泄腹◇腹膨滿
◇胃가다루
◇腸가다루에有効

●全國各藥店에잇슴